第143回國會
(閉 會 中)

第5共和國에있어서의政治權力型非理調査特別委員會 會議錄 第4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8月3日(水)
場 所 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調査對象選定에관한件(繼續)

審査된案件

1. 調査對象選定에관한件(계속)……1面
2. 調査對象關聯者出國停止要請의件……14面

(16時46分 開議)

○委員長 李基澤 尊敬하는 委員 여러분!

오늘 두 時에 本會議를 開催키로 하였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근 세 時間이 경과된 지금 이 시간에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次 當 委員會를 開議하도록 하겠읍니다.

1. 調査對象選定에관한件(계속)

○委員長 李基澤 어제에 연이어서 오늘 또 議事日程 第1項 調査對象選定에관한件을 上程하겠읍니다.

잠깐 報告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午前에 저희들 4黨의 幹事會議를 열어서 어제 調査對象으로 野圍3黨이 主張했던 未合意된 調査對象에 대해서 長時間 동안 진지하게 論議를 했읍니다.

어제 追加調査對象으로 提案說明을 했던 事項이 31件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24件이 되겠읍니다. 이 24件중에서 오늘 午前 幹事會議에서 14件을 새로이 調査對象으로 할 것을 合意했읍니다. 그리고 24件중에서 6件은 合意를 보지 못했읍니다.

이 6件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論議하기로 그렇게 決定을 지었다는 報告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午前 幹事會議에서는 어떠한 事件이라도 필요하다고 認定이 되면 추가해서 調査對象으로 우리가 論議를 하자는 것도 동시에 合意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14件이 調査對象으로 새로이 合意가 이루어지고 6件은 앞으로 계속 論議하기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4件은 人權關聯非理項目을 추가해서 거기에 포함시켰읍니다. 그래서 24件이 되겠읍니다.

合意된 項目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새마을關聯事件 둘째 錦湖그룹 第2民航許可疑惑의件 세번째 80年公職者肅正의件 네째 明星事件 다섯째 地下鐵關聯事件 여섯째 伽倻山觀光團地造成의關聯事件 일곱째 汎洋商船關聯疑惑事件 여덟째 美國産쌀輸入疑惑事件 아홉째 張玲子어음詐欺事件 열번째가 證券市場關係 열한번째 東亞建設權力結託不正疑惑 열두번째 大韓石油公社特定業體引繼事件 열세번째 韓國「트럭터미널」株式強奪事件糾明 열네번째 人權關聯非理 등입니다.

이상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14件을 調査對象으로 確定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張慶宇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이 項目과는 상관없는 議事進行發言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決定을 짓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張慶宇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우리가 3時間이나 기다렸으니까 議事進行發言 한 분만 드리겠읍니다. 그러고 합시다.

○張慶宇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平素 尊敬해마지 않는 李基澤委員長님께서 방금 說明하신 바와 같이 幹事會議에서 있었던 內容을 일단 報告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잠시 議事進行을 멈추었읍니다.

그런데 방금 報告하시면서 바로 報告에 대한 議決을 하실려고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議事進行發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議事進行은 원만한 國會 會議運營을 위해서 可及的 삼가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제 會議中에서도 바로 幹事 協議의 內容에 관해서 追加로 다시 認定하지 않는 문제가 再發生됨으로써 오늘에까지 이르고 또 오늘 이와 같이 委員長님 主宰로 幹事들 間의 合意가 여러가지 면에서 지연되거나 또 未合意된 部分때문에 이렇게 끌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방금 委員長님께서 報告해주신 그 內容들에 대해서 幹事들 間의 合意內容은 原則的으로 지켜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政治의 信義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幹事들간의 合意內容이 다시 委員들간에 뒤집어진다든지 異見이 있을 때는 幹事 合意內容이 그만큼 우리 全體 會議에서 認定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委員長님께서는 幹事 合意內容에 대해서 미리 事前에 全 委員들에게 配付된 油印物도 있읍니다마는 이 幹事 合意內容이 飜覆되지 않는다는 確認下에 바로 議事進行을 해 주시기를 付託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確答을 해 주신 연후에 바로 이 關係에 대한 合意된 14件에 대해서 質問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점 먼저 委員長께서 確認하신 후에 會議進行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金東周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오늘 우리가 2時에 會議를 소집해서 約 2時間 4·50分間 이렇게 지연이 되었읍니다. 물론 방금 張委員께서 의미있는 하나의 議事進行發言을 했는데 저는 솔직이 얘기해서 이 特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는지 또 과연 國民들이 바라는 推進力이 있는 特委가 될는지 무척 걱정이 앞섭니다. 또 방금 제가 同僚委員의 말씀에 어떤 반박이 아니라 저도 委員長한테 얘기를 하겠읍니다.

저는 委員長이 지금 방금 張委員께서 말씀하시는 幹事會議에서 합의된 것을 꼭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하는 이런 어떤 確答을 委員長에게 받고 會議를 진행하자 하는 얘기는 우리 委員이 委員長을 존경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發言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솔직이 생각합니다.

幹事會議에서 合意가 되었다 하더라도 全體會議에서 번복도 할 수 있고 또 빠진 것은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是正할 수 있는 것이 바로 本會議입니다. 또 우리가 憲法도 고치는 마당에 무엇이 되지 않겠읍니까? 可及的이면 幹事들의 合意事項은 우리 委員들이 존중한다 하는 식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 委員의 品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委員長에게 앞으로 꼭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하는 確答을 하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얘기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그 議事進行을 가지고 會議를 또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전에 委員長께서 우리에게 동의를 물은 이래 4黨 幹事間에 合意된 議題에 대해서 可否를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趙昇衡委員 委員長! 質問하나 하겠읍니다.

○委員長 李基澤 委員長의 報告말씀이 다 끝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議事進行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의견이라도 提示하는가 싶어서 發言을 드렸읍니다. 報告말씀 끝나고 나서 趙委員께 質問時間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張慶宇委員 말씀에 대해서 내가 答辯을 드리지요.

委員長이 幹事會議에서 결의된 重要事項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違約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會議를 꼭 진행하자면 이 委員長에게도 방법이 있읍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우리가 원만하게 會議를 진행시키면서 本 委員會에 주어진 使命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추호의 변함도 없읍니다. 나는 처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어느 黨을 代辯하기 위해서 어느 黨의 利益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時間 會議가 지연되었읍니다. 委員長이 지연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제 분명히 散會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읍니다. 오늘 午前에 幹事會議를 해서 여러 黨에서 추가로 調査對象으로 삼을 것에 대한 合意에 가능하면 도달하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이겠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 14件에 대해서 우리가 合意에 이르렀읍니다. 가령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것이 本會議에 오면 그것이 違約이 되고 霧散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여러 組織體나 또 國會에 오랜 세월동안 많은 經驗을 가지고 계시는 同志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幹事會議라는 것은 그것이 強制力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合意를 했더라도 그 보다 더 좋은 의견이 全體會議에서 있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면 變更될 수도 있읍니다. 우리가 本會議를 진지하게 해 본 것이 어제와 오늘 이틀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읍니다. 어제 한 서너 너댓 時間 會議를 해 가지고 幹事會議 合意事項이 다시 本會議에 와서 조금 방향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委員長이 報告하는 會議劈頭부터 議事進行發言을 신청해 가지고……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特委의 委員長인 동시에 또 한 政治人입니다. 물론 張慶宇委員도 앞으로 이 委員會를 걱정해서 委員長이 좀 더 幹事會議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委員會運營을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議事進行發言을 하는 것도 순서가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세 時間이나 지연된 이 會議가 이제 겨우 幹事會議의 결과에 대한 報告를 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고 하면 議事進行發言을 하든지 建議를 하시든지 質疑를 하시든지 충분히 時間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先後의 순서는 꼭 지켜 주시기를 오히려 이 사람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도 委員會를 운영하는데 原則을 가능하면 遵守하겠읍니다.

그리고 幹事會議를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幹事會議에서 합의되면 그것이 本會議에서 일사분란하게 받아들여지고 進行되어 주기를 아마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이 委員長이 바라는 것 아니겠읍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자 그러면 뒤의 報告 말씀이 또 있는데 우선 오늘 午前에 이 幹事會議에서 합의된 14件 追加調査對象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그 다음 다음 報告를 드리면서 그것이 끝나는대로 議事進行發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金重權委員 지금 委員長님께서 하시는 것이 報告인지 지금 議決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報告가 끝났으면 議事進行은 언제든지 줄 수가 있읍니다. 만일에 表決을 宣布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만 報告중이라든가 報告가 끝났으면 可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所屬委員께서 이 會議의 원활한 進行을 위해서 議事進行을 막을 까닭이 없읍니다.

○徐廷華委員 제가 議事進行發言을 좀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읍니다.

조금전에 우리 張慶宇委員이 몇가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張慶宇委員이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표현으로도 그렇고 이 會議가 어떻게 하면 效率的으로 能率的으로 끌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 會議를 딱딱하고 어렵게 풀어가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어제같은 경우에 全體會議를 처음 했읍니다. 어제 會議를 하면서 몇 時間동안 空轉하고 결국은 幹事合意事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렀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前例가 있으니까 이번에 2次會議를 하면서 앞으로 幹事會議를 존중해 가지고 4黨幹事間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좇아서 다같이 能率的으로 會議를 運營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도 幹事會議를 11時에 했고 그 이후에 幹事會議에 대해서 各黨의 委員들이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금 세 時間가까이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어제 會議를 할 때도 30件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野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서 調査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우선 중요한 것을 國民들

한테 알리자는 것이 우리 黨도 많은 委員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는데 議題때문에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어제 30件에다가 오늘 14件 여기에 확정이 되면 그대로 우선 調査에 착수할 수 있도록 國民들이 疑惑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會議를 국민들이 상당히 주시해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張慶宇委員이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委員長께서 너무 약간의 감정이 좀 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하신 것은 委員會運營을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委員長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 會議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 앞으로 幹事會議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本委員도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참 어렵습니다. 徐廷華委員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읍니다. 결국은 議事進行發言은 張慶宇委員과 꼭 같은 말씀이고 張慶宇委員의 發言에 대한 對答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徐廷華委員에 관계되는 事項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나는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張慶宇委員도 이 委員會를 원만하게 運營하기 위해서 또 幹事會議가 좀더 效率的으로 進行되기 위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순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 얘기를 지적한 것 외에는 별다른 얘기를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本人도 아닌 우리 徐委員에게 그것이 잘못 들렸다면 그것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 本 議事日程으로 들어가서 오늘 午前에 4黨幹事會議에서 합의된 追加調査對象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追加로 말씀드릴 것은 합의된 調査對象 가운데서 不實企業項目과 그 다음에 人權關聯非理에 대해서는 該當小委員會에서 구체적인 調査對象項目을 選定해서 全體 本委員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받도록 그렇게 幹事會議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異議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報告말씀이 되겠읍니다마는 오늘 幹事會議에서 平和民主黨으로부터 第2次調査對象目錄이 提出되어서 本委員會에 接受가 되었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委員님들의 책상위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油印物을 參考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次調査對象이 확정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調査活動에 들어갈 채비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 調査活動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方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聽聞會開催에 대해서 그 施行規則이 아직까지 우리 國會에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調査에 착수하면 聽聞會의 方法도 우리가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今日 幹事會議에서는 本 委員長이 運營委員會에 조속한 時日內에 聽聞會施行規則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읍니다.

다음은 當委員會 調査活動과 관련된 資料를 要求하실 委員이 많이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國會事務處에서 배부해 드린 양식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해서 各黨 幹事를 통해서 委員長에게 提出해 주시면 該當部署로 하여금 그 資料를 提出토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 資料提出을 委員長을 통해서 一括議決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異議가 없으시지요? 이것은 委員會의 決議事項이기 때문에 議決을 거쳐야 됩니다.

별다른 異議없지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 調査資料 要求는 우리가 調査를 조속히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8月8日 月曜日 午前 열 時까지 各黨 幹事를 통하여 書面으로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一括해서 該當部署에 資料를 提出하

도록 措置를 取하겠읍니다.

朴 實委員 말씀해주세요.

○朴 實委員 平和民主黨의 朴 實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솔직한 심정으로 本委員會의 效果的인 運營을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로 異議를 提起를 할까 했지만 1次選定하는 데 同意를 表示했읍니다. 그런데 물론 幹事會議의 決定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效果的으로 運營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全的으로 나도 同感입니다. 幹事를 여러 번 해보아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委員會의 決定은 最終的으로 委員會의 議決로서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고 議案을 提示해서 委員會 全體會議에서 議決을 하면 委員會의 意思로서 決定이 되는 것입니다. 다분히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그것을 前提로 해서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幹事會議에서 追加로 서로 協商하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以心傳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本委員會의 效果的인 運營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追加해 달라고 부탁을 幹事들한테 한 것 이 있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80年言論統廢合問題에 관한 문제였읍니다. 그밖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80年 言論 統廢合을 제가 굳이 오늘의 1次議題로서 選定을 해 줄 것을 바랬느냐 하면 幹事會議나 또 여기에서 決定한 것중에 80年 公職者解職問題가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事案이 비슷한 事案입니다. 제일 큰 것이 역시 私企業에 종사하는 現職 言論人이 軍 또는 情報當局에 의해서 強壓的으로 직장을 떠나야 되었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총뿌리에 의해서 美國말로 말해서 「건포인트」 銃뿌리에 의해서 私有財産을 강제로 統廢合당했다 빼앗겼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公職者 公務員의… 百步를 양보해서라도 내가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어요. 公職者 解職問題는 公職者의 倫理 또 公務員身分을 規定한 國家公務員法 또 公職者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政治權力의 介入 可能性… 가령 그 전에 3共和國이라든지 4共和國이라든지 政治的으로 特採過程에서 부당한 人事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등해서 그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 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私企業에 종사하는 言論人을 무리하게 그것도 數字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非公式的으로 집계된 바에 의하면 公務員이나 政府投資關聯企業體에서 종사해가지고 물러났던 사람들이 8,000名내지 9,000名이나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非公式的인 집계지만 韓國記者協會를 비롯해서 그밖에 각종 人權 宗敎團體에서 파악하고 했던 名單들이 다 발표가 된 言論界出身 從事者中에서 해직된 사람들이 7,000名이라는 막대한 數字입니다. 事案이 비슷한데 왜 公職者解職에 관한 문제는 1次에 포함시키고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우선 방금 放送廣告公社問題라든지 그밖에 金錢問題라든지 經濟非理에 관한 것은 좋다 다음에 하자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어요. 事案이 비슷하고 오히려 더 크다고 또 言論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私的企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성격은 다분히 公的인 機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대로 第4府라고 하지않습니까. 事案이 비슷한데 왜 言論統廢合關係에 관한 것은 빼고 解職公職者에 관한 것은 집어넣었느냐 그것이 납득이 안가니까 물론 이것을 다음에 우리가 提出할 것 입니다. 한데 내가 알기로는 民正黨側에서 이것을 反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反對한 이유를 여기에다 꼭 하나만 더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이것 하나만 굳이 빼겠다고 主張한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이에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적어도 제 個人的으로는 다음에도 이 議題選定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도 내가 이것을 주장하지 않을 용의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나는 民正黨이나 또는 幹事會議에 참여했던 幹事中에서 적절하게 설명해 주시오.

○委員長 李基澤 지금 發言하신 朴 實委員께서 民正黨이나 참여했던 幹事쪽에서 答辯을 해 달라고 했읍니다. 幹事들 중에서 答辯하는 것보다는 그 會議를 주재했던 委員長이

오히려 잠깐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선 반대를 왜 했느냐 어느 쪽에서 반대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사실 各黨에서 굉장히 많은 調査對象이 本委員會에 接受가 되었읍니니다. 그중에서 1次調査對象으로 우리가 확정지어진 것이 마흔 네 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各 事案에 따라서는 그 輕重이 다 다를 수 있읍니다. 지금 朴 實委員께서 지적하신 言論統·廢合問題에 있어서는 어느 事案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 어떤 委員은 다른 事案이 더 중요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 왜 調査對象에서 제외되었느냐 하는 그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것 참 公開席上에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가 반대했느냐 누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報告말씀 가운데도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이 44個 調査對象을 확정했다손치더라도 수시수시…… 더군다나 이번에 어제 調査對象으로 우리 提案說明까지 했다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수시 추가로 調査對象으로 넣도록 노력하자 論議하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朴 實委員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 사람도 사실 言論統·廢合問題는 調査對象에 포함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調査對象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委員長이 朴 實委員에게 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朴 實委員 노력하실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제가 아까 質問을 하는 과정에서 訥辯으로 설명을 했지만 解職公職者問題하고 事案이 비슷한 성격이 事案인데 이것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될텐데 굳이 안 한 이유를 그것가지고는 납득 안 가네요. 그래서…

○委員長 李基澤 여하튼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그 이상 解答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朴委員께서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奉祚委員……

○金奉祚委員 金奉祚委員입니다.

오늘 우리 委員會의 議事日程을 대충 마친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決議한 것도 있고 事案의 중요성을 보아 議事日程變更動議案을 提案하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우리 委員會에서 調査對象人士들이 지금 상당하게 調査對象項目과 또한 事項에 대해서 은폐 또한 造作할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逃避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그제와 어제 黨委員會에서 調査해야 될 事案으로 李順子씨의 새世代育英會 및 心臟財團關聯非理에 대한 그런 誠金部分에 대해서 新聞에 다 지워버리고 한 것이 報道가 되어 버렸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빠르게 調査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統一民主黨 次元에서 調査對象人士들에 대해서 法務部에 出國停止要請을 했읍니다마는 公式으로 우리 非理特委에서 委員長 이름으로 委員會가 決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時限은 지금 委員長께서 各黨의 幹事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8日까지 하라고 그랬읍니다. 그때까지 各黨이 調査對象人物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出國을 停止토록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人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同時에 같이 그날 제출해서 決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本委員이 正式으로 出國停止要請動議案을 提案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어떻습니까? 金奉祚委員께서 즉 議事日程 變更動議가 되겠읍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이 時間까지 本委員會에서 調査해야 될 事件들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정된 調査對象 事件의 범주에 속하는 主要調査對象人物이라고 예상되는 人士들에 대해서 出國停止를 政府當國에 우리 本委員會의 이름으로 요청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議事日程 變更動議를 했읍니다.

動議案에 찬성하십니까?

金東周委員 말씀하세요.

○金東周委員 發言權 얻었읍니다.

방금 우리 金奉祚委員께서 議事日程變更動議案을 냈읍니다. 거기에 本委員은 再請합니다. 그리고 같이 動議案에 再請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黨에서는 非理調査對象者

및 證人出國停止에 관한 件을 지금 현재 우리 金委員이 動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再請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張慶宇委員 말씀하세요.

○張慶宇委員 張慶宇委員입니다.

방금 金奉祚委員님께서 議事日程變更에 관한 動議를 내시고 또 金東周委員님께서 거기에 대한 贊成發言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議事進行發言을 하는 이유는 委員長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議事日程變更動議에 관해서는 本會議에서도 매우 이것을 重要視하기 때문에 事前에 議長이 各交涉團體代表들과 協議를 해서 日程變更이나 案件을 追加하도록끔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또 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20人 이상의 同意를 얻어서 그 이유를 添附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委員會가 지금까지 우리 委員會의 使命을 걸면서 며칠간에 걸쳐 가지고 調査對象選定을 하는 데에도 數次에 걸친 幹事協議會와 全體會議의 여러 가지 論難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에 이르르고 있읍니다. 겨우 오늘 3次會議에 걸쳐서 44個의 調査對象選定項目을 정했는데 이제 방금 이 자리에서 緊急動議形式으로 해서 바로 議事日程變更動議에 의해서 이 時點에서 調査對象選定도 이제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調査對象이 과연 누가 될 것이며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참 막연하고 방법 자체도 그렇고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특별히 강조해서 해 주신 말씀이 지금 證言·鑑定에 관한 規則에 관한 制定問題라든지 證人 採擇에 관한 規則制定하는 문제가 있어서 證人을 採擇할 적에 書類樣式도 아직 구비된 바도 없읍니다.

이렇게 우리 國會가 준비해야 될 미비된 事件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議事日程變更動議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은 議事日程 자체에 순조로운 進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委員長께서 특히 交涉團體代表들 間에 이 문제에 관한 충분한 協議가 있어야지만 案件으로 議事日程變更動議案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그 可否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金奉旭委員 가능한 한 發言을 안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세 時間이나 本委員會가 지연되고 또 이제부터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부득이 議事進行發言을 안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張委員께서 議事日程變更은 20人 이상의 요구가 있을 적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本會議입니다. 常任委員會에서는 한 사람의 動議者하고 再請이 있으면 끝났읍니다. 그 規定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本會議의 20人까지 찾아 가면서… 지금 議事日程變更動議가 나왔고 贊成發言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議事日程變更案은 일응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反對하려면 反對意思를 표시해야지 本會議의 要求條件을 가지고 이 特委에다가 내놓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분명히 條文을 보세요. 한 사람 動議에 한 사람 再請이 있으면 動議가 成立이 됩니다.

엄연히 法에 있는데 法의 規定을 無視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는 動議의 再請한 사람도 아니고 三請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議事進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張慶宇委員 평소 金奉旭委員님께서 本委員의 말씀에 많은 曲解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國會法의 本會議를 몰라서 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本會議에서도 이만큼 議事日程變更이나 案件의 追加가 중요한 案件인데 바로 오늘 우리 國會法 特委의 지금 상황에서 이 時點에서 議事日程變更動議案을 내는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議事進行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자체가 지금 再請이 된다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金奉旭委員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奉旭委員 本委員이 요구할 事項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常任委나 特委에서는 두 사람의… 動議에 贊成이 있으면 成案이 됩니다. 議事日程變更의 議案으로 提案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고 엄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關係 專門委員 條項을 한번 朗讀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條項을 듣고 얘기하세요.

○委員長 李基澤 李聖浩委員 얘기하세요.

○李聖浩委員 제가 金奉旭委員께서 우리 張慶宇委員께서 하신 議事進行에 대한 本意를 그러한 精神을 얘기한 것으로 들었고 제가 議事進行發言을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調査對象을 2次에 걸쳐서 44個를 決定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幹事會議에서 여러 가지 論議를 거쳐서 지금 定했고 그 定한 그 自體가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도 또한 훌륭한 우리의 活動을 위해서 效率的인 活動을 위해서 定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幹事 네 분이 수고를 하셨고 또 委員長께서도 직접 主宰도 했고 그 수고한 모든 것이라든가 우리 國會의 또한 傳統으로 보아서 委員會를 運營할 그 幹事會議의 決定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事情變更이 급박한 事項이 아니면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이 우리 國會의 傳統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調査對象選定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무엇이 우리가 앞으로 調査를 해 나갈 날짜가 많은데 그래 하루 더 幹事會議를 할 수도 있는 事項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급격히 議事日程變更을 전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과연 우리 委員會를 원만하고 效率的으로 運營하는 그러한 方法이 되겠느냐 그러한 심한 우려를 本委員은 禁치 못합니다.

委員長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문제 自體가 動議를 하고 또한 賛成을 했다고 해서 문제를 處理하기 전에 幹事會議에 다시 한번 문제를 附議하는 것이 우리 本委員會 運營에 지극히 有效하다고 생각하는데 議事進行을 위해서 委員長께 말씀드려 둡니다.

○金東周委員 방금 우리 李委員 말씀이나 우리 野黨委員들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議事日程 그러니까 順位決定을 할 때 調査對象決定을 할 때 民正黨의 某委員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많은 民正黨委員들은 빨리 調査를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불과 30分前에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同僚委員께서 아마… 지금 會議를 議事日程이 다 끝났읍니다. 이제 끝나가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더 진지하게 빠른 速度로 證據湮滅이 되기 전에 海外逃避를 하기 전에 調査를 하기 위해서 아마 動議案을 냈고 本委員이 거기에 再請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出國停止시키자 안시키자 하는 決定을 하자는 趣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動議案을 正式으로 委員長께서는 採擇을 해 주시고 잠깐 停會를 해서 幹事會議에서 그 날짜와 그렇지 않으면 出國停止者의 어떤 調整問題는 幹事會議에 넘기는 것이 效率的인 議事進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徐廷華委員 말씀하세요.

○徐廷華委員 조금 전에 우리 金東周委員께서 얼마전에 제가 發言한 데 대해서 조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얘기를 하겠읍니다.

本 委員會가 國民이 바라는 것처럼 效率的으로 運營돼 가지고 國民이 願하는 것처럼 과연 제대로 調査를 해 가지고 한 件 한 件 빨리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다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議事日程 變更動議가 들어와 가지고 44件에 대해서 관련된 證人을 전부 합친다면 예를 든다면 상당한 人員입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各 案件別로 따져도 그렇고 그 다음에 不實企業만 해도 78件에 해당되는 證人들을 전부 과연 出國停止를 언제까지 이것이 끝나는데 언제까지 停止시킬 것이냐… 선량한 證人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人權侵害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委員會가 이렇게 國民의 人權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같이 論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緊急動議를 해가지고 변경시켜 가지고 갑자기 정하자 하는 문제는 國民을 위하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해당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 마흔 네 件이 決定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幹事會議를 통해서 效率的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人權을 保護한다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숙의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決定해도 늦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오늘 이 시간에 議事日程 變更動議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제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深思熟考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員長 李基澤** 盧武鉉委員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말씀이 자꾸만 오고가고 해서 끼이는 것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會議를 全體的으로 바라보면서 좀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어제 저는 幹事會議에서 調査對象案件을 확정하는 節次에 관해서 個人的으로 불평을 토로한 일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비록 案件의 上程에 관한 문제 案件의 채택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이 문제는 案件의 채택 그 자체가 委員會의 活動全體를 좌우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節次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사실은 實質의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 國會의 모든 會議는 原則的으로 公開하게 되어 있읍니다. 公開하게 되어 있는 취지는 당신들이 비록 國會議員으로서 國民의 授權을 받고 왔지마는 쑥덕쑥덕하지 말고 모든 것을 公開해서 國民의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幹事會議에서 討論될 것이 아니고 公開된 자리에서 各委員을 설득하고 또 國民에게 비판을 받는 자리어야 한다는 뜻의 私見을 표현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굳이 고집하지 않았읍니다. 그 이유는 역시 與黨을 포함한 各黨에서 案件上程에 관한 문제를 놓고 賛反討論을 하면서 세월만 보낼 것이냐 우리 國民이 한 件이라도 빨리 調査를 해달라고 얼마나 빗발치는 압력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討論만 하고 있다는 것은 非能率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委員들이 幹事會議에서 合意해서 올리는 節次에 合意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결국 그 말은 하루라도 빨리 한 件이라도 빨리 實質審査에 들어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會議에 節次의 내용이 중요하냐 形式的 節次가 중요하냐 적어도 形式的 節次가 合法的인 이상 다소 과거에 해왔던 그런 慣行보다는 조금 성급한 맛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委員會를 지배했던 國民이 지금까지도 빨리 독촉을 하고 있다는 이 요구를 제대로 받아 들인다면은 사소한 節次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 하고 넘기고 또 내일 合意하고 넘기고 이렇게 세월만 보내서야 國民들이 마치 調査를 갖다 뒤로 遲延시키려 하지않는가 특히 與黨側에서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니까 與黨에서 뒤로 미루지 않는가 하는 이런 嫌疑를 받을 可能性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議事進行發言의 結論은 분명히 動議가 있고 再請이 있어서 議案이 성립되었으면 이제 賛反討論으로 들어가 주어야지 그것이 合理的이지 않다 하는 것으로 議事進行發言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反對討論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聖浩委員** 委員長! 身上發言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身上發言부터 먼저 하세요.

○**李聖浩委員** 지금 盧武鉉委員께서 本委員이 幹事會議에다가 議事日程變更된 事項에 대해서 提出을 하는 것이 원만한 本 會議의 運營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委員長께서는 그러한 것을 좀 배려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그 말이 마치 우리 調査活動을 意圖的으로 本委員이 遲延시키기 위한 그러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극히 유감된 일입니다.

○**盧武鉉委員**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표현했읍니다.

○**李聖浩委員** 내가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今日 두번에 걸쳐서 幹事會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午前 11時에 했고 또 두 時가 넘어서 하셨는데 그간에 충분히 調査對象選定에 관한 案件이 처리된 다음에 議事日程을 그 자리에서 變更動議를 서로 幹事協議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냐 그러한 議事進行의 원만한 運營을 위해서 한 것이지 마치 이것이 우리 民正黨側에서 意圖的으로 이것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도 이 調査活動에 임하는 자세는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하고 實體的인 사실을 파헤쳐서 國民의 의혹을 풀고자 하는 그 意圖는 野黨이상으로

우리도 명확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아까 盧武鉉委員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解明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盧武鉉委員 解明이 필요하면 速記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委員長 李基澤 됐읍니다. 盧武鉉委員 참으시지요. 金東圭委員 發言하시고 다음에 우리 林春元委員께서 말씀해 주세요.

○金東圭委員 여러 가지 論難이 많았읍니다만 조금 오해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金奉祚委員이 議事日程變更動議案에 낸 내용에는 調査對象者 直接對象者만 우선 出國停止措置를 하자는 것이 案件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證人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證人問題는 나중의 문제로 이해해주길 부탁합니다.

두번째로 그 提議內容이 8月8日까지 各黨에서 直接調査對象者名單을 내가지고 幹事會議를 거쳐서 그리고 그 名單을 出國停止名單確定을 다시 한번 全體會議를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法律上 解釋을 합니다. 그런데 8月 어차피 直接調査對象者를 안하려면 모를까 그 사람들의 名單을 各黨에서 調査를 해서 8月8日까지 내서 全體會議에 붙이자는 그 자체에 대해서 反對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어렵게 푸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주시길 부탁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林春元委員 말씀하세요.

○林春元委員 平民黨 林春元委員입니다.

지금까지 調査委員會의 會議進行狀況을 저는 지켜만 보았읍니다.

우리가 이 委員會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안 지금 調査對象 調査方法 範圍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決定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우리 委員會를 보는 우리 國民들은 참으로 실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盧武鉉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幹事會議에서 대충 정해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말씀에도 本委員은 全的으로 同意합니다.

우리는 이 委員會를 이끌어 가는 동안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것이 과연 國民들에게 國民들이 바라고 있는 바인가 하는 부분 문제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公開的으로 누가 어떤 문제를 조사하자는데 누구는 왜 무엇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자고 그랬는가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會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本委員이 걱정하는 바는 아까 海外 나가는 것을 出國停止시키는 부분 문제도 幹事會議에서 정하자 그것은 그럴 수 없읍니다.

幹事會議에서 누구는 나갈 수 있고 누구는 나갈 수 없고 그 정의를 정하는 것은 各委員들에 주어진 특수한 각각 생각하는 바다를 것입니다.

물론 가능한 한 幹事會議에서 잘 합의되어서 되어지면 좋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委員會運營을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委員長께서는 이 委員會를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도 모든 부분 문제가 공개되도록 특히 어떤 문제를 제기한 委員은 누구고 이것을 반대하는 委員은 누구인지 사실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委員會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두면서 本委員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金重權委員 제가 정리를 하겠읍니다.

民正黨 幹事로서 자꾸 發言하는 것이 뭐합니다마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幹事입니다마는 많은 고충이 있읍니다. 우리 所屬委員만 해도 열세 분이나 되고 또 열세 분의 의사를 어느 정도 집약해서 幹事會議든 어떤 모임에서 代辯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幹事會議가 國會法所定의 機關이 아니고 아무런 모임도 아닙니다.

또 幹事會議 決定事項이 法上 羈束力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拘束力도 없읍니다. 幹事會議에서 합의된 사항을 全體會議에서 뒤엎을 수도 있읍니다. 또 따를 수도 있읍니다. 또 反對된 의논을 할 수도 있읍니다. 하나의 常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各 所屬交涉團體別로 幹事를 選出했다고 하는 것은 그 所屬交涉團

體의 의사를 어느 정도 代辯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에서 幹事會議에 임해 왔고 또 이 全體會議의 效率的인 진행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所屬委員 열세 분의 그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可及的으로 한 목소리로 취합해가면서 저는 代辯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各 個人 사이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의사에 반하는 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民正黨에서 뽑아진 選出된 하나의 幹事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모두가 따라 주었읍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委員들이 모두 憲法機關입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 法律上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幹事會議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能率的인 측면에서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件件事事 이 全體會議에서 결정하고 논의하고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本會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各 交涉團體를 代表하는 總務가 있읍니다. 總務가 결정하면 그것이 설사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따르는 것이 하나의 議會의 관행이고 또 法律的인 처리를 위해서 모두다 우리들이 수긍하면서 따라가는 하나의 귀한 관행이 아닙니까?

나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幹事會議의 性格糾明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法律 條文 어디에…… 委員 여러분 찾아 보십시오. 대화와 타협이다 양보다 그것 어디 있읍니까? 한 條文 어디도 없읍니다.

그러나 全體 그 法 속에 맥맥히 흐르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또 시간을 끌면서 상대를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自己 주장도 한번 상대편에게 양보하면서 설득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議會의 관행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면서 여기서 件件事事 어떤 것을 하자고 하면 정말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둘째 아까 우리 金奉祚委員님께서 奇襲的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런 用語를 구태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어떻든 議事日程 追加를 動議를 하셨는데 물론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調査對象을 선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끌고 있읍니다. 지금 이 選定作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과 몇 가지 고비를 넘겼읍니다.

國會法을 들출 것도 없읍니다마는 議事日程을 정할 때는 委員長은 幹事와 協議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까 여러 委員님 말씀처럼 國會法에 어떤 議事日程變更이나 追加를 위한 그런 장치가 있읍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마는 본인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會議가 다른 會議와 다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 會議가 政治的인 어떤 委員會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 實體를 규명해보는 實體진실을 발견하는 그런 司法的인 處理를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띤 委員會라고 한다면 여기는 數의 多數 힘의 多數로 결정돼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證據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적절한 설득할 만한 資料를 통해서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數의 어떤 위력 多數決 이런 것으로 處理한다면 그것은 少數集團의 설움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쯤 짚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證人問題에 대해서 出國禁止問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이 證人에 대한 사람들은 出國停止를 요청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실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 金東圭委員께서는 對象을 말하는 것이 證人은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調査對象이라도 일단 國會에 나올 때는 證人의 자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對象과 證人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앞으로 調査가 진행될 때 出國停止要請할 수 있읍니다. 왜 성급하게 지금부터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政治的인 목적때문이 아니냐… 진실의 발견을 위해 있어야 할 이 會議가 처음부터 사뭇 政治的인 識見과 대립되어 있는 이런 集團속에서의 政治的인 「이슈」를 가지고 달려든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結論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出國停止를 要請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委員會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이시간에 생각하는 것은 지금 時期的으로 볼 때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證據湮滅을 말씀하셨읍니다. 證據湮滅이라고 하는 것은 國內에 있을 때 證據湮滅이 되는 것이지 出國될 때는 證據湮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當事者가 出國되어 버린다면 證據가 湮滅되는 것이 아니지요. 나는 이런 측면에서 證據湮滅 운운하면서 出國停止를 要請한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出國停止를 처음부터 막는다 안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 목적은 항상 진실발견을 위해서 이런 것이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평소에 民正黨에 소속된 委員으로서 또 交涉團體를 代表하는 幹事로서의 고민도 정리해 보면서 議事進行 취지의 發言을 했읍니다.

○委員長 李基澤 許萬基委員 말씀하세요.

○許萬基委員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政治的인 그런 理論展開를 하고 이런 次元으로 우리 特別委員會가 運營이 되면은 이것은 政治討論場밖에 되지 않습니다.

民正黨은 民正黨으로서의 政治的 입장이 있고 또 우리 野黨은 野黨으로서의 政治的 입장이 있읍니다마는 各 黨이 서로 利己的인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 委員會는 能率的인 運營이 전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委員會를 民正黨 委員들께서 몇 번씩이나 강조를 했읍니다마는 가장 效率的이고 能率的인 그런 運營을 하기 위해서는 事案에 대한 發言을 위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논란도 事案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委員長께서 會議의 진행을 우리 會議進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그런 發言을 너무 많이 허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양쪽에서 政治的 發言을 함으로 해서 감정을 격화시키고 감정을 촉발하고 이래서 우리가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도 없거니와 또 會議도 破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委員長께서는 會議를 원만하게 運營하시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委員會가 設置된 목적과는 동떨어진 그런 쪽으로 發言하시는 委員들에게 與野를 막론하고 發言의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運營을 하시기 보다는 지극히 事務的인 쪽으로 이렇게 運營을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우리 會議를 조속히 진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安秉珪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安秉珪委員 安秉珪委員입니다.

저도 며칠전에 歸鄕活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읍니다. 지금 光州特別問題도 중요하지마는 대부분 사람들이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 소위 政治權力型非理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이 特別活動에 대해서 왜 빨리 特定事案 하나를 놓고라도 제대로 따지고 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밝혀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추궁을 받았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흔히들 앞으로 野黨所屬 委員들간에 굳이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마는 民正黨側에서 무슨 調査를 기피하려고 한다거나 지연시키려고 한다거나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남이 들으면 오해하기 좋은 그런 發言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같은 委員會에 所屬된 한 「멤버」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드리겠읍니다.

金奉祚委員이 動議한 出國停止要請의 件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가 表決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하는 이런 先例를 남기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幹事會議를 상당히 중시해 왔고 또 政派間에 의견을 일단 한번 걸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잠깐 停會를 하고 우선 幹事들끼리 얘기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委員長에게 정식으로 建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選定된 소위 本 特委에서 다루어야 될 調査對象에 따르는 對象人物이나 또 本件과 관련된 어떤 證人등이 具體的으로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委員會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실이 없읍니다. 또 앞으로 調査方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확정되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例는 안되겠지마는 조금 얘기가 빗나갈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이왕 아기를 배었으니까 이름부터 하나 짓자 그러나 아들일지 딸일지 아들 이름 딸 이름 이렇게 지을 필요없이 아이가 나와서 아들이면 아들대로 딸이면 딸대로 이름 지을 수 있읍니다.

왜냐 하면 아까 金奉祚委員도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8月8日까지 資料要請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 對象 人物에 대한 證人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出國停止를 正式으로 本 委員會 議決로 요청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리 그런 事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動議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후에 하는 것보다는 일단 幹事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이 문제는 8月8日쯤 해서 本委員會에서 어차피 결정해야 될 것이니까 그때 다루는 것도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委員長에게 정식으로 建議를 합니다.

○趙昇衡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基澤 趙委員 말씀하세요.

○趙昇衡委員 지금 제가 이 法律的으로 整理를 간단히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民主黨側에서 動議案을 냈고 또 再請이 있었읍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委員長으로서는 動議案이 成立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動議案이 成立되었음을 宣布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發言들을 쭉 들으셔야 할텐데 아직까지 宣布를 안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委員長의 그와 같은 行爲가 違法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委員長의 人格이… 저 믿습니다.

또 平素에 4黨간에 원만하게 合意한 가운데 모든 議事를 進行하실려고 하는 그점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時間이 한 가지 문제때문에 時間을 이렇게 많이 消耗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國民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會議進行要領에 따라서 하시고 일응 動議가 성립이 되었으면 宣布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좋은 案이 계셔서 일단 停會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受容할 의사가 계시면 그때에 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 會議가 非經濟的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5共非理特委의 委員으로서 國民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 있을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신속한 會議進行을 해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잘 들었읍니다.

原則的으로 會議를 進行하자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趙昇衡委員의 말씀이 옳습니다. 動議가 있었고 또 金東周委員의 贊成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國會法 66條에 의해서 自動的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요. 委員長의 折衷案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까지는 會議法에 의해서 이미 動議가 성립된 것으로 이렇게 하고 處理問題는 잠시 停會를 해서 4黨幹事間에 한번 論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3分 會議中止)

(20時4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民正黨 委員 全員이 不參하고 또 無所屬 洪熙杓委員이 지금 자리에 없는 가운데 저희들 委員의 31人中에서 16人이 지금 出席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過半數 이상 出席이기 때문에 이 會議가 成立이 되었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會議를 續開하겠읍니다마는 續開를 宣布하기 전에 委員長의 所懷의 一端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與黨委員이 全員 參席하지를 않았읍니다.

오늘 2時 會議를 開議코자 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民正黨만의 會議를 한다는 名目으로 우리 野圈側에서는 근 세 時間을 기다렸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5時 가까이 되어서 會議가 成立되었읍니다.

그래서 6時5分까지 約 한 時間동안 調査對象 追加項目을 選定하고 그 다음에 出頭停止要請의件을 議事日程 2項으로 上程시켜놓고 또 停會를 했읍니다.

그 時間이 約 6時5分頃이었읍니다.

그후 우리들은 끈질기게 民正黨이 이자리에 出席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또 國會 專門委員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이 委員長의 命에 의해서 國會 職員들이 民正黨委員들의 出席을 督勵하기도 했읍니다. 지금 밤 9時를 곧 가리키겠읍니다마는 아직까지 民正黨委員은 參席치 않고 또 民正黨을 代表하는 幹事를 만날 길조차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野圈3黨 連席懇談會도 조금전에 가져서 이러한 狀況에 우리가 어떻게 會議를 進行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協議를 해 보았읍니다.

많은 委員들의 생각도 그렇고 이 委員長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議事日程으로 上程된 第2項 調査對象에 관련된 出國停止者要請의件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善意로 判斷을 해도 與黨委員이 우리 野黨의 뜻에 첫째는 同調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判斷입니다. 동조를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가 보시다시피 이 會議場에 參席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이 宿命的인 民正黨의 입장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우리들 野圈 전부의 판단은 어떤 경우라도 與圈이 出國停止要請件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이 지루한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우리 전부가 하지 않은 이 狀況까지 기다렸읍니다마는 出席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들만이라도 會議를 續開를 하고 또 第2項인 出國停止要請의件을 上程해서 정식으로 審議를 할까 이렇게 결정을 내렸읍니다.

그동안 國會經歷들이 다 많으시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많이 당했읍니다. 과거 與野 兩大 政黨이 있을 때 與黨만의 單獨國會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읍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單獨國會를 막으려고 문을 열려고 문을 부숴보기도 하고 했읍니다마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광경을 여러 차례 우리가 目睹했읍니다. 그러한 쓰라린 과거 우리 議政史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與黨이 參席하도록 끝까지 기다렸읍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野圈의 平民黨 그리고 民主黨 共和黨이 參與를 했고 또 出席委員이 過半數를 넘고 民正黨 한 黨만 이 자리에 參席을 하지 않았읍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會議를 野黨이 힘이 모자랄 때는 延長시켜달라고 사정도 해봤읍니다. 또 그 會議를 막으려고도 해봤읍니다. 지금은 우리가 會議를 함께 하자고 해도 찾을 길이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 懇談會에서 오늘 會議를 續開하기로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할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變更動議件을 議題로 정식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2. 調査對象關聯者出國停止要請의件

(20時54分)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調査對象關聯者出國停止要請의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動議를 發議하신 金奉祚委員께서 趣旨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奉祚委員 金奉祚委員입니다.

우리 5共非理特委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순간 순간들이 많았읍니까? 그러나 國民의 絶對輿望이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로 그래도 國家發展을 위해서 온 國民이 피땀흘려 노력해 왔고 그런 중에서도 第5共和國下에서 執權을 하면서 너무나 國民의 기대와 바램에 동떨어진 그러한 統治結果가 왔읍니다.

그래서 온 國民은 분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剔抉함에 있어서 우리 委員 모두는 人情的으로 아쉬움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利害對象者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歷史를 펼치고 우리가 정말 온 國民의 마음을 함께 뜻을 모은다는 뜻에서 아픔을 참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르게 調査를 하고 또 우리가 國民 앞에 다 밝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委員會의 使命은 너무나 크고 또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歷史와 國民 앞에 떳떳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다 해냈다 하는 自負心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제와 어제 우리가 調査하고자 하는 그 對象의 事案인 李順子씨의 새世代育英會에 대한 寄附金 募金한 帳簿…… 이것이 個人의 自己 私有財産이 아닙니다. 또 그 帳簿가 個人이 함부로 지우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마음대로 지금도 證據를 湮滅하고 또 임의대로 處理할 수 있다는 이러한 思考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순간도 調査를 해야 될 그 事案들이 隱蔽되고 많이 造作될 可能性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調査를 위해서 委員長께서 各黨이 가지고 있는 參考要求書를 提出하라는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에 맞지 않게 調査對象이 되는 全斗煥씨의 親姻戚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調査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委員들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어서 우리의 所期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出國을 禁止하는 決議를 해서 우리가 政府에 要請을 하자 하는 뜻으로 本委員이 同意案을 提議했던 것입니다.

○朴 實委員 平和民主黨 朴 實委員입니다.

民主黨의 金泰祚委員 말씀대로 事案의 重大性이나 證據湮滅 그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議事日程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대해서 우리 平民黨도 全的으로 同意를 했읍니다. 또 民正黨委員들은 이 자리에 出席하지 않아서 퍽 유감스럽습니다마는 民正黨委員側의 아까 主張이 特定對象者를 論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包括的으로 議決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反論을 사실 提起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黨에서도 黨 자체의 調査活動을 통해서 調査對象人物을 지금 把握하고 있읍니다. 또 많은 資料를 지금 우리가 蒐集해서 整理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왕에 民正黨側에서 그런 主張도 있고 해서 우리는 節次를 밟아 가지고 시간을 봐서 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議事日程으로 채택을 했고 趣旨說明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平民黨은 우리 委員會의 效果的인 운영을 위해서 기왕에 우리 委員會가 全斗煥 前大統領一家의 非理를 포함해서 많은 정확히 말해서 44個議題를 지금 채택했읍니다. 그중에는 全大統領一家의 財産海外逃避疑惑을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案件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第1次的으로 本委員會의 效果的인 調査活動을 돕기 위해서 또 그밖에 증거인멸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第1次的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人員을 우리가 제한했읍니다. 제한해서 前 全大統領一家에 관한 친인척 또 우리가 이 기왕에 案件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된 증인 내지는 피의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出國을 정지할 것을 政府에 요청하도록 本委員會에서 정식으로 결의할 것을 動議하면서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對象者로서 1次的으로 全씨一家의 非理와 관련된 것을 주로해서 全斗煥 前大統領 간단히 이유를 설명하자면 포괄적인 모든 의미가 있지마는 우선 제가 편의상 日海財團關聯非理 등에서 여러 가지 國民疑惑을 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本委員會에 출두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全斗煥 前大統領을 비롯해서 李順子씨 全斗煥 前大統領의 처입니다.

구체적인 事項은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새세대育英會非理에 關聯된 事項 또 全斗煥씨의 형인 全基煥 이분도 여러 가지 많은 非理의 의혹이 지금 있읍니다마는 代表的으로 鷺梁津水産市場強制引受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 全淳煥 이분도 全斗煥씨의 사촌형입니다. 具體的인 事案으로서는 大田삼성市場 敷地買入에 관련된 의혹 또 全禹煥 이분 역시 全斗煥씨의 6촌형이 되는 분입니다. 이분의 혐의로 보면 美國産쌀輸入關聯非理 그리고 현재 拘束중인 全敬煥 前새마을本部中央會長의 처인 孫春枝씨 이 사람은 靑松院이라

든지 새마을 本部關聯非理에 우리가 參考로 해야 될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法務部에서 出國禁止가 되어 있읍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全敬煥씨도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야 되지만 이분 역시 현재 拘束 搜査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를 했읍니다. 全敬煥씨도 검해서 우리가 포함을 할 수도 있읍니다.

그다음에 李圭東 全斗煥씨의 장인 이분 역시 여러 가지 非理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代表的으로 평화農場特惠關聯非理입니다.

여덟번째로 李圭光씨 이분 역시 全斗煥씨의 처삼촌 되는 분입니다. 이미 國民이 다 알고 있는 張玲子어음詐欺事件과 관련해서 法院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입니다. 李圭光…… 그 다음에 全斗煥씨의 처남이 되는 李昌錫씨 이분역시 本委員會에서 議題로 채택한 동일特惠事件非理에 관련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全斗煥씨의 동서인 金相球씨 이분은 이야말로 全씨一家의 海外財產逃避說과 관련해서 國民의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洪淳斗씨 이사람 역시 全斗煥씨의 동서되는 사람입니다. 역시 東亞建設이 各種權力을 동원해서 非理에 관련되었거나 결탁한 혐의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崔正國씨 이사람은 全斗煥씨의 형인 全基煥씨의 처 조카사위가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읍니다. 역시 本委員會에서 議題로 선택한 鷺梁津水產市場強制引受過程에 깊이 政治權力과 관련해서 개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李圭東씨의 동생되는 李圭昇씨 또 全敬煥씨 이 사람의 동서되는 金勝雄씨 이사람도 현재 拘束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出國禁止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黃興植씨 이 사람역시 全敬煥씨의 동서되는 사람으로서 새마을本部關聯非理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충 第1次 本委員會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證言을 청취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調査할 대상자로서 全씨一家 非理와 관련해서 第1次的으로 이상 本委員이 말씀드린 열다섯 사람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는 두사람의 出國停止者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열다섯사람에 대해서 國會議決로서 政府에 요청할 때 기왕에 出國停止가 되어 있는 사람이나 또 이사람을 포함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는 委員長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일단 平和民主黨으로서는 이상 열거한 열다섯 사람을 出國禁止를 해주도록 政府에 요청할 것을 정식으로 決議할 것을 提案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상 열거한 사람은 統一民主黨이나 新民主共和黨側과 사전에 협의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民正黨委員들이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 事案에 대해서 棄權의 표시로 본인은 알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의한 이상 열다섯 名에 대해서 第1次的으로 出國禁止를 政府側에 요청한 데 대해서 委員님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 하셔서 本委員會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 의미를 재삼 인식하셔서 동의해 주실 것을 제가 충분히 더 이상…

○金奉祚委員 그러면 동의에 朴 實委員께서 참가해서 特定人을 거명해 주셨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拘束된 사람중에 全敬煥씨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朴 實委員 全敬煥씨를 한 사람 더 추가하겠읍니다.

○金奉祚委員 예. 全敬煥씨 들어가야지요. 좋습니다.

○朴 實委員 어때요? 共和黨도 贊成하시지요?

○金東周委員 그러면 16名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奉祚委員께서 第1次 出國禁止要請에 대해서 趣旨說明을 해 주셨고 다음에 朴 實委員께서 第1次 出國禁止要請 對象者 名單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事由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읍니다.

이렇게 해서 提案說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添加 動議가 있었는데 별 異義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어떻습니까? 會議節次를 봐서는 質疑 討論이 있어야 되는데 質疑 討論은 이미 3黨의 懇談會에서도 솔직히 얘기가 됐고 해서 어떻습니까? 꼭 發言하실 분이 계십니

까?

○崔戊龍委員 지금 마지막 委員長께서 마무리 지으신 말씀에 전부 同意합니다.

한 가지 첨부할 것은 이러한 調査對象으로 정해진 項目들이 거의 전부가 民正黨에서 제출했다는 사실을 꼭 첨부해 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民正黨이 제출했던 18件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出國禁止要請 對象者 名單이라는 것을 요약해서 밝혀 주신 것입니다. 崔戊龍委員 그렇지요?

○崔戊龍委員 예. 맞습니다.

○孫周恒委員 물론 客觀的으로 볼 적에는 이것이 저희들 野團에서 사전에 懇談會를 통해서 충분히 擧論되었기 때문에 滿場一致로 通過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歷史의 記錄을 남기기 위해서 平民黨의 孫周恒委員 本人이 말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 提議된 動議案이 정말 참 엄숙하게 通過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通過된 이 案이 委員長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國民의 의지를 담아서 政府側에 傳達되어서 꼭 이 뜻이 有終의 美를 거두어야 한다는 本委員의 강력한 의견을 첨부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와 같은 特定人 열여섯 분의 出國停止가 우리 特委에서 이렇게 提議된 것은 結果的으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政府에서 1988年3月18日 6時에 KAL機便으로 그 당시 全國民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全敬煥이가 日本으로 出國을 했읍니다.

天下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全敬煥이가 엄청난 새마을 非理의 主犯으로서 歷史와 國民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政府는 그 모든 國民의 輿論을 외면하고 日本 大阪으로 出國시켰읍니다.

그래가지고 3月22日 귀국을 했고 그리고서 3月31日 拘束을 시켰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全敬煥이의 엄청난 非理가 이 政府의 故意的이고 그리고 도 어떻게 보면은 그의 犯罪는 隱蔽하는 그러한 政策「미스」로 인해서 엄청난 非理와 엄청난 證據物을 가지고 갔던 작은 가방속에 전부 담겨져 가지고 外國에 隱匿된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나간 歷史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全斗煥씨와 李順子씨는 本 平民黨 第5共和國非理調査特別委員會에서 내놓아진 非理의 내용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全斗煥씨 內外가 海外로 亡命說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提起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全斗煥씨는 뭐라고 말을 했는고니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新聞을 통해서 자기는 法廷에 서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亡命을 하지 않겠다고 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작금의 外信에 의하면은 全斗煥씨 內外가 지금 亡命을 하다가 일부… 金某라고 하는 少領에 의해서큰 負傷을 입었다 하는 허무맹랑한 流言蜚語가 지금 떠돌고 있읍니다.

더우기 저희들이 이 非理對象으로 올라서 있는 全斗煥 個人 專用機가 外信에 의하면 臺當 1億弗 상당의 飛行機 두 臺가 이와 같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상황이 대단히 위태로울 적에 亡命用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飛行機 두 臺가 지금 國內에 備置가 되어 있다 이런 記事도 우리가 重要視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全斗煥씨 그리고 李順子씨를 포함한 이 가까운 一家族이 저희 特委의 基本的인 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그리고 國民들이 直視하고 있고 歷史가 준엄하게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이 엄청난 事件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도 꼭 이 案이 滿場一致로 通過가 되어 가지고 강력한 意思가 政府에 建議되어 가지고 有終의 美를 거두어야 한다 하는 뜻으로 제가 補充說明을 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 補充說明까지 다 마쳤읍니다. 앞으로 우리 事件 調査를 해 나감에 있어서 거기에 比例해서 出國 禁止要請對象者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豫想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1次 出國禁止要請對象者 16人을 決定할 때도 상당한 시간 深思熟考하고 또 빼기도 하고 다시 찾아서 넣기도 하고 그런 作業을 몇 時間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委員會는 이러한 出國禁止 및 證言者를 選擇할 때 가능하면 人權의 침해가 없고 또 名譽毁損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활동에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우리 野圃3黨의 第1次 出國禁止要請對象者 16人을 확정한 것은 바로 歷史의 뜻이요 우리 國民의 命令으로 알고 確定키로 議決하겠읍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면 滿場一致로 되는 것입니다.

○金泰昨委員 野圃3黨이 아니라 우리 委員會의 이름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예. 委員會 이름으로 滿場一致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會議는 各 交涉團體 幹事委員들과 협의하는 대로 알려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수고하셨읍니다. 너무 늦었읍니다.

○金東周委員 委員長님 거기에 대해서 異議가 있읍니다. 지금 우리 國會法에 보면 幹事會議가 합의가 안 되었을 때 委員長이 會議를 소집하는 문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래서 저는 오늘 民正黨이 이 중요한 案件을 審議하는 데 故意的으로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봐서 8日날 10時 예정된 幹事會議가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 全 委員들이 다 있는 이 자리에서 8日날 全體會議를 소집하는 것을 決議를 하고 議案은 事件調査對象處理에관한件 이래서 8日 午後 2時에 全體會議를 소집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正式으로 動議를 했읍니까?

○金東周委員 正式 動議합니다.

(「贊成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基澤 贊成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午後 2時에 全體會議를 소집하도록 그렇게 決議하지요.

(「예」하는 이 있음)

알겠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散會까지 함께 宣布합니다.

(21時24分 散會)

○出席委員

李 基 澤	金 重 權	朴 進 球
徐 廷 華	安 秉 珪	梁 慶 子
李 聖 浩	李 承 潤	李 廷 武
張 慶 宇	黃 潤 錤	金 泰 旭
金 琦 鎬	朴 實	孫 周 恒
林 春 元	趙 昇 衡	許 萬 基
姜 信 玉	金 東 圭	金 東 周
金 泰 祚	盧 武 鉉	金 鍾 植
金 炫	崔 戊 龍	洪 熙 杓

○委員아닌出席議員

金 元 基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李 起 昆
立 法 審 議 官	權 龍 太
立 法 審 議 官	姜 俊 浩